



**[산업]**  
KT  
4차 혁명 핵심 인프라에  
5년간 23兆 투자  
04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다친 경찰·소방관  
맞춤 치료로 복귀 도와  
L6



① '아름인' 대학생 봉사단이 벽화그리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② '아름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름인 대학생 북멘토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③ 신한카드 '아름인' 고객봉사단이 지난 6월 강남구 하상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가정을 위한 반찬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④ 신한카드 임직원들이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⑤ '아름인' 북멘토 대학생 봉사단 7기가 봉사단 양성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⑥ '아름인'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 건축봉사를 하고 있다.

# “자선아네요, 참여입니다” 아름인이 꾸민 아름다운 세상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⑩ 신한카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 고객과 사회, 그리고 신한이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 발전. 신한카드가 실천하는 살맛나는 세상이다.

신한카드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자선형 사회공헌'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Open style) 사회공헌'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 아름인'은 카드업계 최초로 구현된 체계적인 사회공헌 브랜드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와 신뢰를 쌓아왔다. 신한카드 기부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이기도 한 '아름인(ARUMIN)'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하고 있다. 다양한 기부 콘텐츠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나눔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 '아름인 도서관'  
'아름인 도서관'은 신한카드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시설이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아름인 도서관은 아동, 청소년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희망, 상상력을 키워갈 권리를 주고자 마련됐다.

이후 2015년에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

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독서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도시와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 신한카드는 해외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 2016년 7월 미얀마에도 세 번째 '아름인 도서관'을 지었다.

지난해 말 기준 아름인 도서관은 국내 470여 개, 해외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4개가 설립돼 있다. 도서관 이용자 수는 총 6만 6000명으로 지원된 도서도 53만1500권에 이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한카드의 기부금과 임직원, 고객 성금으로 문을 연 아름인 도서관은 매년 시민들이 기부한 책으로 꾸준히 채워지고 있다.

이밖에도 아름인 도서관을 찾는 아동을 위해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이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도 해주며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다.

선발된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은 독서지도 교육을 받은 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름인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멘토링 워크숍을 진행한다.

### 임직원·고객 함께하는 사회공헌 펼쳐 국내외 '아름인 도서관' 지어 책 기부 카드 포인트 기부·급여 우수리 제도

2012년 활동을 시작한 아름인 북멘토 봉사단은 올해로 7해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름인 북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밝은 미래를 꿈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 임직원·고객·사회 구성원이 함께...

신한카드는 임직원과 고객을 비롯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활동을 지향한다. 고객은 기부전용 사이트인 '아름인'을 통해 카드 결제나 포인트 결제로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던 고객을 위해 봉사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한카드 아름인 고객봉사단'은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년 3월 발족 이후 고객 400여명이 거쳐갔다. 올해도 매달 50여명 규모의 봉사단이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지난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객 허영진(45)씨는 "지난달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너무 큰 보람을 느껴 이번에는 자녀와 함

께 참여하게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큰 행복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아름인 고객봉사단은 신한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카드 사회공헌 포털 사이트 아름인 기부사이트를 통해 매년 초에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임직원은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임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1만원씩 신천계좌수만큼 기부해 참여하는 '사랑의 1계좌 모금'과 급여에서 1000원 미만 끝잔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신한카드의 기부금은 133억 2400만원으로 전업계 카드사 중 유일하게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카드의 사회공헌재단 출연금은 약 36억원 수준이고, 그 외 60억원에 달하는 증가액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희망사회 공동모금과 연말 사랑나눔 성금 등 각 계열사에서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며 "신한카드 임직원과 고객, 사회구성원의 작은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사진=신한카드